

#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 발간, 배포

최근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국부 손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내용 및 구체적 보호요령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이번 특허청이 발간·배포한 책자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과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두 가지 종류의 해설서이다.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은 그간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을 해설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별 기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는 시간에 쫓기는 관리자 등이 부담 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현행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산업스파이의 피해가 크게 부각되면서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에는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 규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체 및 관련기관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 두 가지 책자를 기업체,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6천개소에 총 7천5백부를 배포하였다.

# CJ, 한미약품과의 상표권 분쟁서 승리

CJ와 한미약품 간에 일년 넘게 계속되던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치료제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청이 일단 CJ의 손을 들어줬다.

CJ는 지난 10월 19일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치료제인 '심바스타'가 특허청으로부터 선출원 원칙에 따라 상표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CJ는 이에 따라 조만간 한미약품을 상대로 같은 제품명 '심바스타'에 대해 판매 및 제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CJ는 지난 2001년 12월 특허청에 '심바스타' 상표를 출원한 후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8일 '심바스타'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 CJ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고 CJ는 설명했다.

이에 CJ 측도 지난 9월 한미약품에 대해 유사상표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양측은 심바스타틴 제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결국 특허청이 선출원 원칙에 따라 CJ의 상

표권을 인정하고 한미약품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J 관계자는 'CJ는 심바스타를 출시하기 위해 지난 98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심바스타틴 합성에 성공하고, 2건의 제법특허를 획득하는 등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며 '이번 특허청의 결정으로 한미약품 심바스타는 빠르면 11월중으로 판매 및 제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심바스타틴 제제 시장은 연간 3백억원으로, CJ 심바스타가 연 20여억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한미약품 심바스타는 연 40여억원이 판매돼 한미약품이 앞서고 있는 상태다.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이후 심바스타틴 제네릭 제제가 출시되면서 각 제약회사가 서로 비슷한 상표명으로 제품을 판매, 영업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 장간편

# 가전제품, 부품만 같면 '새 것'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의 가전제품 평균 사용기간은 대체로 약 7년 정도. 한국 소비자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균 3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소모성 부품을 갈아주지만 하면 새 것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소형가전의 매력을 몰라서이다. 주기마다 부품을 갈아준다면 가전제품, 오래 쓸 수 있다.

### 압력밥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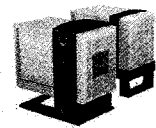
압력밥솥의 경우 오래 쓰다 보면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데 이는 뚜껑 안쪽에 있는 고무 패킹이 헐거워지면서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때는 고무패킹을 바꾸면 밥맛이 다시 좋아진다.

압력밥솥의 고무패킹은 1년 반에서 2년 마다 한번 갈아주는 소모품. 국산 밥솥의 고무패킹 교체 비용은 6천원, 수입 밥솥은 2만원 정도다.

압력밥솥을 오래 쓰려면 밥솥 본체의 열판, 내솥, 배출구 부분을 자주 닦아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로 닦아준 뒤 햇빛에 말려주면 된다. 미디엄 필터는 6개월 마다, 헤파 카본 필터는 1년 또는 2~5년 마다 교체해준다.

### 가습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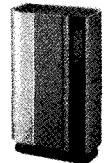


가습기를 통해 수증기를 직접 마시게 되므로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가습기의 진동자는 8천 시간마다 한번씩, 정화필터는 6개월 마다 교체해야 한다. 가습기를 오래 사용하려면 매주 두 번씩 조심스럽게 진동자를 청소할 것.

오랫동안 보관할 때에는 물통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서 상자에 넣어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한다.

###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일정 기간이 되면 필터를 새 것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필터는 물로 세척하는 필터와 교체해야 하는 필터가 있어 잘 구분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필터 청소·교환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이 내장된 제품들도 많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바깥부터 순서대로 프리 필터, 미디엄 필터, 헤파 카본 필터가 들어있다. 프리 필터는 한 달마다 물

### 면도기



면도기를 오래 사용하면 면도날이 무더지고 날을 감싼 면도망도 닳아 피부가 손상되기 쉽다. 또 충전식은 모터의 출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백화점

매장이나 제조사 A/S 센터에서 면도날, 망, 충전지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면도망과 날, 한 세트에 1~2만원선, 충전지는 2~6만원대이다.

### 소형 가전제품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

부품	연락처
면도기 망, 날	브라운(1588-1588), 필립스전자(080-600-6600), 유닉스전자(02-703-7111)
압력밥솥 고무패킹	쿠쿠홈시스(1588-8899), 휘슬러(1588-4777), 삼성전자(1588-3366), 웅진코웨이(1588-5100)
가습기 필터, 진동자	삼성전자(1588-3366), 쿠쿠홈시스(1588-8899), LG전자(1588-7700), 일렉션(02-3462-6410)
공기청정기 먼지주머니	청풍무구(080-655-0202), 웅진코웨이(1588-5100), 사프전자(1588-8333), 삼성전자(1588-3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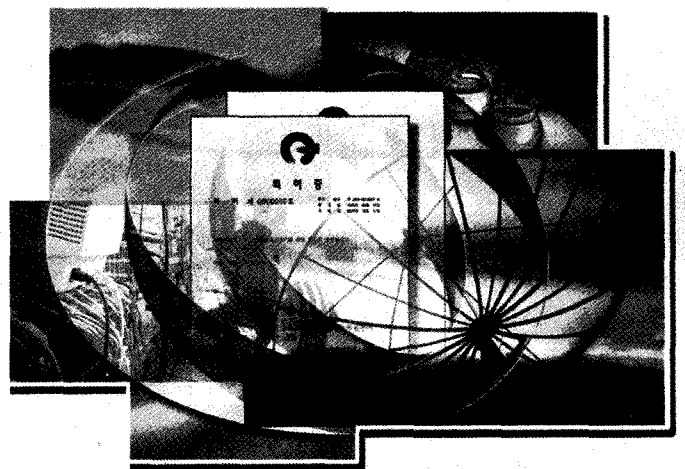
Pay attention to the patent information, be free from your competitors!

# “한국특허정보원은 우리나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 특허 map작성 서비스
- TPDB(Topical Patent Database)서비스
- 정보가공 서비스
- 상표조사 서비스
- 기술가치평가 서비스
- IP컨설팅
- KIPRIS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업무수행
-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수행
- 특허청 데이터관리 센터 운영
- KPA(한국특허영문조목) 발간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사업수행
-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운영
- 특허청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한국특허정보원  
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